

복지 프로그램 아직은 걸음마 수준

불교 실버시설 어디까지 왔나

현황

현재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조사한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총 92곳. 복지관, 노인병원 등 낮 시간 동안 운영하는 '이용시설' 37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55곳은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이다.

이중 생활시설은 크게 요양원(34곳)과 양로원(21곳)으로 나누어지며, 양로원은 유료·무료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버타운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해인사실버타운, 성라원, 보문사 안양원 등 3곳, 유료시설은 보살선원, 충효의집, 금강수도원, 불로원 등 6곳, 무료시설은 거북마을, 여래원, 연꽃마을양로원, 울산양로원 등 모두 12곳이다.

운영실태

양로시설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수익원의 입주금을 받는 실버타운, 일정한 보증금과 생활비를 받는 유료시설,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이용자가 운영비를 전담하는 실버타운인 성라원의 경우, 9명씩 입주금은 5천만원선이며 월 생활비 50만원을 따로 받는다. 해인사실버타운(7천~1억5천만원), 보문사 안양원(5천만원)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료시설 중에는 평생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받는 곳(보살선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보다 적은 이용료를 받거나 무료시설을 겸하고 있다. 무료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노인 1인당 약 8만원)을 받거나 완전히 사찰 지원금이나 후원금만으로 운영된다.

이들 시설들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료시설들은 무의탁 노인들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운영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별다른 프로그램을 갖춘 곳이 드물다. 뿐만 아니라 유료시설, 실버타운

2002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대략 377만여 명, 전체 인구(4천7백만명)의 7.9%에 달한다. 어느새 한국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노년층을 상대로 '실버'란 이름을 단 산업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이 선거공약으로 승가노인복지원 건립 계획을 제시하는 등 승려 노후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가 노인복지 문제 해결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양로시설 등 불교 실버시설 운영 현황과 그 사회적 역할, 전망 등을 짚어본다.

** 불교계 양로시설 **		
실버타운	보문사 안양원	041-545-6631
	해인사실버타운	055-934-0250
	성라원	031-585-3323
유료시설	보살선원	055-352-3999
	충효의집	031-241-9949
	금강수도원	054-373-1961
	불로원	054-453-7424
	금강원	041-853-1068
무료시설	천불사늑아원	055-383-9212
	거북마을	031-952-4801
	대원양로원	055-536-2116
	여래원	051-337-9998
	소할원	061-373-6404
	연꽃마을양로원	031-337-3677
	울산양로원	052-297-1930
	자재정사	031-356-9030
	장수양로원	063-334-2792
	정화양로원	051-332-3996
천우자애원	054-745-4900	
통도사자비원	055-382-3999	
해명양로원	02-802-6765	



◁ 지난해 화성 자재정사에서 불자들이 발맞사지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무료시설 무의탁노인 생계보장 수준

유료·실버타운도 의료·체력단련 정도

역시 간단한 의료서비스, 체력 단련 등의 문화생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교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울산 양로원의 경우, 독경·명상·유적답사 등의 불교적 프로그램은 물론 공작, 한글교실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불교계가 자연스럽게 노

일부 시설 운영난... 사찰 도움 받아

"중단차원 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절실"

인복지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역할

전체 노인복지시설 중 불교계 운영 시설은 19%에 불과해, 아직은 개신교, 가톨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교 실버시설의 사회적 역할 역시 두드러진 편이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실버타운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몇 년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리 없이 자비행을 실천하는 실버시설도 상당수 있다. 부산 여래원은 매달 운영비 6백만원을 사찰 지원금으로 해결한다. 33명의 노인을 보호하는 울산양로원의 운영에도 원각선원의 지원과 불자들의 자원봉사 및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거북마을, 소할원의 경우, 사찰과 불자들이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특히 자재정사는 묘회 스님이 14년째 70여명의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 보살선원과 금강수도원 등은 불자들이 수행생활을 하며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바람직한 불교 실버시설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전망

정부의 노인 복지정책이 변하고 있다.

2003년 노인복지 예산이 38% 이상 증가했고 올해 안으로 18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건설된다. 또 2007년부터는 '노인공적요양제도'가 실시된다.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불교 실버시설은 몇 가지 방향으로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수혜 대상 확대 ▲유료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 요양시설 증가를 불교 실버시설의 나아갈 길로 꼽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호걸 총무부장은 "지금 30·40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저출산 등으로 노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최하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의 노인들이 문화, 종교생활 등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단 차원의 불교 복지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경재
교사 대표



실상사 작은학교 이야기

생명·자연·자립 배우는 교육현장

불교계 인재불사 끊임없길 서원

지난 3월 1일 실상사 작은학교 3기 입학식을 하였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곳 지리산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상사 작은학교는 37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사가 함께하는, 어느새 작지 않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지난 2001년 3월, 15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로서 중학교과정의 3년제 비인가 학교입니다.

어느새 '대안'이라는 말은 우리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접두어가 되었습니다. 대안사회, 대안문화, 대안적 삶, 대안교육 등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짚어보면 대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주장하는 가치와 실천들이 우리의 근본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위기, 교실붕괴라는 말이 만연해진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대안학교는 되살려 내야 할 우리의 참교육 모색의 현장으로 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었지만, 초등대안학교 10여개,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10여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이 땅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획일적,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 지향하는 가치의 올바른 이해보다는 아직도 기존 주류적 시각에서 파생된 왜곡된 시각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안학교라고 하면 학교부적응 학생이 다니거나 경제적, 혹은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틈만 나면 이야기 합니다. 대안학교는 다양한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그 대상, 즉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느냐를 기원합니다.

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자연친화적·자립적 정신을 배우는 생명살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존중합니다. 성숙한 인격 갖춤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상생체, 지리산과 지역민의 삶속에서 배우는 지역공동체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실상사작은학교의 지난 2년(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뚜렷하면서도 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열정이 앞서고, 서로간의 기대가 커서 이 모두를 풀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라난다'는 학교교육의 방향성에 따라 작은학교 어른들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작은학교가 자기 삶의 소중한 현장임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더 교사의 근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와 같이 작은학교에 입학했다고 말할 정도로 작은학교와의 인연이 뜨겁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학부모가 변하고 교사가 진정으로 학교의 교육철학에 체화돼 가면서 아이들의 의식도 눈에 띄게 성숙해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완간 출시

드디어 「수정보완본」 전12권이 완간되었습니다. 본서(本書)를 애호하시고 선입금하신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어른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포교원을 여십니까?

■ 독살림을 계획하십니까?

■ 절 살림이 여의치 않습니까?

■ 오행을 미처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까?

※ 출생 연월일시를 물을 필요가 없고 만세력도 볼 필요가 없으며 그날 그시간만 보면 됩니다

여기,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서(奇書)가 있습니다

- 이 책에서 밝혀진 귀신(작사鬼와 병鬼)과 산소탈과 빌미부정은 정확하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적시해 놓은 귀신해소법은 영험하기로 유명합니다.
- 매일 하루치를 꺼내보고 넣고하므로 세세영영 간편히 보게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보서입니다.
-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 감히 말하건대 이책 이상의 편리하고 정확한 활인천역서는 없을 것입니다.
- 이 책은 귀하를 편안하게, 넉넉하게, 명성있게 해 줄것이 틀림없습니다.

■ 책값이 비싸지만 비싼만큼 더 큰 효과가 있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사육임강의록」을 증보합니다. 전에 구입하신 분은 교환 신청하십시오. 무료 교환해 드립니다. - 효 사 -

주문 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입금 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신용카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問